

경제교육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의 과제*

문 승 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장 경 호 (인하대 사회교육과)

한 경 동 (한국외대 경제학부)

1. 서 론

일찍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교수는 “모든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경제 정보와 마주치는데, 이 중 올바른 정보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정보의 유용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이 필요하며, 이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경제교육이다.”라고 설파하면서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경제·금융 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경제 과목을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배워야 할 8개 핵심 과목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21개 주(州)가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필수과목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많은 주가 필수과목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CEE, 2009).

이 같은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필수과목 지정은 고사하고 현재도 부족한 경제교육 시간을 줄이려 하고 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2009. 7. 24.)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연구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총론 시안”(2009. 9. 29.), “고등학교 도덕/사회 선택과목 교육과정 시안”(2009. 11월) 등에서 경제교육의 축소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최근 “미래형 교육과정” 등에서 나타난 문제를 규명해보고, 경제교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한국개발연구원 공동 주최 세미나(2009. 11. 5) 「청소년 경제교육,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발표 자료를 수정, 보완한 것임.

육을 위한 대안과 과제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국가교육과정에 나타난 경제교육의 모습을 살펴보고, 경제교육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실태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미래형 교육 과정” 등을 중심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논의된 경제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마지막 4장에서는 경제교육에 있어서 “미래형 교육과정”의 대안과 과제를 도출한다.

2. 경제교육에서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과 교사

1) 국가교육과정과 경제교육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교과서 개발의 토대가 되며 교수 학습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국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¹⁾

그동안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오면서 학교에서의 경제교육도 변천해왔다. 특히 고등학교 사회과를 중심으로 경제교육 관련 교육과정은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948~54년 교수요목기에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경제편(개론)을 주당 2시간 학습하도록 하였으며, 1954~63년 1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사회의 한 학년 영역으로 2학년에서 ‘경제와 사회’(주당 3시간)로, 1963~74년 2차 교육과정부터는 일반사회(경제 1개 단위)가 분리되어 정치와 합쳐져 ‘정치·경제(4단위)’²⁾가 되었으며, 1974~81년 3차 교육과정 중 1977년에는 ‘정치·경제’를 필수 교과로 하였다. 1981~88년 4차 교육과정에서는 경제를 법, 정치, 사회문화 등의 학습 내용과 통합하여 ‘사회 I (4-6단위)’과 ‘사회 II (4단위)’ 형태로 학습하도록 하였으며, 1988~92년 5차 교육과정에서는 ‘정치·경제(6단위)’를 공통필수 과목으로 이수토록 하였다. 1992~97년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는 ‘경제(4단위)’라는 독립된 선택과목이 되었으며, 1997~2007년 7차 교육과정에서는 ‘경제(6단위)’는 사회과 심화선택과목의 하나로 설정되었다. 2012년 3월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적용될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경제(6단위)’는 선택과목으로 제공될 예정이었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8. 6.22] [법률 제8917호, 2008. 3.21, 일부개정]

제23조 (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 (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임.

〈표 1〉 경제교육 관련 교육과정의 변천(고등학교 사회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시 기	편 제								비 고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	1945~1946	국민, 지리·역사									
교수 요목기	1946~1954	국민, 역사, 지리를 통합한 사회생활(필수) 1학년 정치편, 2학년 경제편 , 3학년 윤리철학(주당 2시간)									
제1차 교육과정	1954~1963	학년	필수 과목				선택 과목				
		3	일반사회(3), 도덕(1)		국사 (3)	지리(3)	세계사(3)				
		2	일반사회(3) , 도덕(1)								
		1	일반사회(3), 도덕(1)								
제2차 교육과정	1963~1974	학년	인문과정			자연과정		실업과정		전 과목 필수	
		3	정치·경제[4] 지리Ⅱ [4]			지리Ⅱ [6]		정치·경제[4]			
		2	일반사회 [4]	국민윤리 [4]	국사[6]	세계사 [6]	지리Ⅰ [6]				
		1									
제3차 교육과정	1974~1981	학년	필수 및 필수선택 과목				과정별 선택 과목			국사, 국민윤리	
		전 학 년	정치·경제[4~6]³⁾ 사회문화[4~6], 세계사[4~6] 국토지리[4~6] 세계지리[4~6]				인문과정: 필수에서 제외된 3과목[12~18] 자연과정: 사회문화, 세계사, 국토지리, 인문지리 중 택1				
제4차 교육과정	1981~1988	학년	공통필수		인문과정	자연과정	실업과정			국사, 국민윤리	
		전 학 년	사회Ⅰ [4~6] 지리Ⅰ [4~6] 세계사[2]		사회Ⅱ [4] 지리Ⅱ [4] 세계사[2]	-	사회Ⅰ [2~6] 지리Ⅰ /세계사 중 택1[2~6]				
제5차 교육과정	1988~1992	학년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국사, 국민윤리, 생활경제	
		전 학 년	공통필수		정치·경제[6] 한국지리[4]		공통 필수	정치·경제[4] 한국지리[4]			
			인문사회 과정		사회문화[4], 세계사[4] 세계지리[4]						
			자연과정		세계사[4]		선택 과목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중 택1[4]			
			직업 과정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중 택1[4]						
제6차 교육과정	1992~1997	학년	공통필수		과정 필수 (시·도 선택)					윤리	
		전 학 년	공통사회 (사회영역[4], 지리영역[4])		국사 [6]	정치 [4]	경제 [4]	사회 문화 [4]	세계 지리 [6]		세계사 [6]
제7차 교육과정	1997~2007	학년	일반선택		심화선택					도덕[2], 시민윤리[4]. 윤리와 사상[4], 전통윤리[4], 생활경제[4]	
		12	인간사회와 환경 [4]		경제[6] , 정치[8], 법과 사회[6], 사회문화[8], 한국지리[8], 세계지리[8]. 경제지리[6], 한국근현대사[8], 세계사[8]						
		11									
		10	사회[10(국사[4])]								
2007년 개정 교육과정	2007~	학년	공통 및 선택							도덕[2], 현대생활과 윤리[6], 윤리와 사상[6], 전통윤리[6], 생활경제[4]	
		12	경제[6] , 정치[6], 법과 사회[6], 사회문화[6], 한국지리[6], 세계지리[6]. 경제지리[6], 한국문화사[6], 세계역사의 이해[6], 동아시아사[6]								
		11									
		10	사회[6] , 역사[6]								

주 : ()는 주당 평균수업시수, []안은 단위수임.

자료: 김용태(1998)를 수정 보완함.

2) 고등학생의 경제 선택의 실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8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제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고등학교 수는 685개이며, 2학년 학생은 71,932명, 3학년 학생은 57,436명이다 (<표 2> 참조). 이와 같은 수치는 전국 2,190개 고등학교의 31.28%, 2학년 학생 646,630명의 11.12%, 3학년 학생 577,167명의 9.95%로 10개 고등학교 중 3개교, 2학년 또는 3학년 학생 10명 중 1명 정도만이 경제를 선택하여 학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³⁾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로 나누어 볼 때, 1,493개 일반계 고등학교의 41.80%인 624개교가 경제를 선택하고 있는 반면, 697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61개교(8.75%)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 수에 있어서도 전문계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보다 현저히 낮아 2학년 또는 3학년 학생 1,000명 중 4~7명 정도만이 경제를 학습하고 있다.

<표 2> 고등학생의 경제 과목 선택 현황

(단위: 개, 명, %)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합계	2,190	18,717	18,126	646,630	577,167
경제선택 고등학교	685	2,137	1,926	71,932	57,436
	(31.28)	(11.42)	(10.63)	(11.12)	(9.95)
일반계 고등학교 소계	1,493	13,392	12,796	483,361	423,803
경제선택 고등학교	624	1,887	1,790	69,338	53,532
	(28.49)	(10.08)	(9.88)	(10.72)	(9.27)
	<41.80>	<14.09>	<13.99>	<14.34>	<12.63>
전문계 고등학교 소계	697	5,325	5,330	163,269	153,364
경제선택 고등학교	61	250	136	2,594	3,904
	(2.79)	(1.34)	(0.75)	(0.40)	(0.68)
	<8.75>	<4.69>	<2.55>	<1.59>	<2.55>

주 : 1) () 는 고등학교 합계에 대한 비율, < >은 계열별 합계에 대한 비율임.

2) 2008. 4. 1. 현재 기준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2009).

한편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탐구의 한 과목인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 수의 추이는 <표 3>을 참조할 수 있다. 2007학년도 이후 2009학년도까지 연 평균 50여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수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은 15% 내외인 8만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3)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2008학년도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 경우 인문·사회 과목군(국어, 도덕, 사회)의 하나로 경제 과목을 선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적으로 인문과정의 학생은 2학년 또는 3학년에서 심화선택으로 도덕 과목의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지리 과목인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역사 과목인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일반사회 과목인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중 4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고 있음.

〈표 3〉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응시 현황

(단위: 명, %)

		2007			2008			2009		
		인원	순위	증감	인원	순위	증감	인원	순위	증감
윤리		161,421	4	1.79	165,127	4	2.30	171,001	4	3.56
국사		69,507	7	-30.62	57,570	7	-17.17	58,635	7	1.85
지리	한국지리	214,499	2	1.41	221,773	2	3.39	220,083	2	-0.76
	세계지리	37,917	10	13.71	40,047	10	5.62	40,551	10	1.26
	경제지리	54,289	9	13.61	52,925	9	-2.51	54,104	9	2.23
역사	한국근현대사	168,414	3	-2.49	174,834	3	3.81	193,905	3	10.91
	세계사	33,120	11	0.93	34,838	11	5.19	33,549	11	-3.70
일반사회	법과 사회	62,434	8	-0.24	57,009	8	-8.69	56,111	8	-1.58
	정치	106,392	5	3.81	108,958	5	2.41	113,083	5	3.79
	경제	88,068	6	1.62	84,239	6	-4.55	80,559	6	-4.57
		(27.83)			(26.57)			(24.64)		
		<15.96>			<15.30>			<14.40>		
	사회문화	227,422	1	0.79	231,950	1	1.99	247,329	1	6.63
사회탐구 응시자		316,490		-1.16	317,014		0.17	326,947		3.13
총 수능 응시자		551,884		-0.44	550,588		-0.23	559,475		1.61

주 : ()안은 사람 응시자 대비 구성비, < >는 총응시자 대비 구성비임.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 고등학교 경제 교사의 현황

현재 고등학교에서 경제는 대부분 사회과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전공의 교사가 경제를 가르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현황 파악이 쉽지 않으나, 2004년 국정 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학부 전공은 <표 4>와 같다. 일반사회 전공 교사의 비중이 47.1%로 가장 높고, 경제학 전공 교사가 11.5%로 두 번째, 그리고 지리 전공 교사가 9.1%로 세 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밖에는 교육학, 행정학, 역사학, 법학, 사회학 등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이들 교사들이 학부에서 경제학을 적어도 3과목 이상 수강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일반사회와 경제학 전공자들의 비중 58.6%를 제외하면, 나머지 약 40%의 교사는 대학 재학 중 경제학과는 무관한 교사들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전공이 일반사회나 경제학이 아니었다고 해서 이들이 대학 재학 중에 실제로 경제학을 전혀 듣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이들이 일반사회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복수전공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전공으로 임용시험에 응시해서 교사가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 고등학교 경제 교사의 대학 전공 현황

(단위: 명, %)

전공	계	일반사회	경제	지리	교육	행정	역사	법학	사회학	기타
교사 수	747	352	86	68	43	42	30	29	24	73
비율	100.0	47.1	11.5	9.1	5.8	5.6	4.0	3.9	3.2	9.8

자료: 2004년 이주호 의원 국정감사 자료, 박명호(2005)에서 재인용.

〈표 5〉을 보면 경제 교사 중 임용시험에서 일반사회 전공으로 응시했던 교사가 전체의 약 4분의 3인 7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리 9.4%, 공통사회 7.2%, 역사 4.8%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지리와 역사를 제외한 여타 분야(경제학, 교육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등) 전공자들은 거의 대부분 일반사회나 공통사회를 복수전공하여 임용시험을 통과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복수전공에 필요한 학점 이수 과정에서 최소한 1~3개 정도의 경제학 과목은 이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임용시험에서 일반사회와 공통사회를 제외한 약 20%의 교사는 대학 재학 중 경제학을 거의 수강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고등학교 경제 교사의 임용 당시 전공 현황

(단위: 명, %)

전공	계	일반사회	지리	공통사회	역사	교련	과학	기타
교사 수	747	555	70	54	36	6	3	23
비율(%)	100	74.3	9.4	7.2	4.8	0.8	0.4	3.1

자료: 2004년 이주호 의원 국정감사 자료, 박명호(2005)에서 재인용.

3.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

1)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총론 시안」

2009년 7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을 발표하고, 2009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다시 개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래형 교육과정』의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년군, 교과군, 집중이수제 도입으로 학기당 이수 과목수를 초등학교는 10개 과목에서 7개 과목으로, 중·고등학교는 13개 과목에서 8개 과목 이하로 축소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공통 10개 기본교과를 7개 교과군으로 통합·조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현행 주당 2시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표 6〉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의 교과 축소 방향

현행 10개 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		↓			↓				↓	
개선 7개 교과군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외국어	체육	예술	

셋째, 현행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기간을 현행 10년(초1~고1)에서 9년(초1~중3)으로 조정하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단위학교에게 주어진 자율권을 바탕으로 특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넷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초영역(국어, 영어, 수학), 탐구영역(사회, 과학), 예체능영역(체육, 예술), 선택영역(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등) 등 4대 영역으로 구분하면서, 각 영역별 최소이수시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특히 학교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상경, 인문, 이공, 예체능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화·체계화 하였다. 아울러 현재의 80개로 세분화되어 있는 선택 교과목을 학생들이 학생 수준에 맞게 교과목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내용상 위계가 가능한 교과는 수준별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9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을 바탕으로 2009년 12월까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특히 경제 과목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2009 개정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를 위탁하여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일반사회 영역 선택과목 조정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에 제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일반사회 선택과목은 2개로 ‘정치·경제’와 ‘사회·문화·법’이다. 내용의 다소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과거 6차 교육과정기의 같은 선례를 따라 학교 적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둘째, 2개 과목을 구성할 때 내용 분량은 각각 기존의 2/3 정도로 하되,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요소도 적극 도입하도록 한다.

셋째, 구체적인 내용 요소 선정과 조직은 관련 학계의 공론을 거쳐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정리해 나간다.

2)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경제교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일반사회 영역 선택과목 조정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경제교육의 축소하는 것이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 논리의 개발과 함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경제교육 내용의 제시가 필요하였다.

사실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2월 경제교육지원법이 되었고, 2009년 3월에는 교

육과학기술부가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취지의 2009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6개월도 안되어 경제교육을 위축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경제교육 강화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며,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일반사회’는 과목 명칭이 아니며, 제반 사회과학을 망라하는 영역 명칭이며, 현행 선택과목은 각 학문의 계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 사회 등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목 또는 영역 균형 논리를 산술적,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단일 학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역사’, ‘지리’, 특히 ‘윤리(철학의 일부분)’ 등과, 제반 사회과학을 망라하고 있는 ‘일반사회 영역’에 각각 동일한 과목 수(2과목)를 배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다.

또한 경제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과목 선 이수’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과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교육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통폐합하여 축소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⁴⁾

한편 「미래형 교육과정」이 글로벌 시민 양성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글로벌 사회의 핵심적 변화는 경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거의 생존 전략에 가까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다 경제생활 친화적인 경제교육을 위해 개인 자산관리와 기업가 및 창업 등을 포함하는 내용요소와 단원을 제시하였다.⁵⁾

4. 결론 - 대안과 과제

1) 경제의 필수과목화

미래형 교육 과정에서 학습 부담 경감과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를 위한 과목 축소는 바람직하다

4) 2009년 11월 25일 ‘2009 고등학교 일반사회 선택과목 개정 시안’ 공청회 자료에서 경제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른 교과목과 통합하지 않고, 독립 교과를 유지하기 하였음.

5)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경제’에 포함될 단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6) 경제생활과 금융

개인은 경제생활을 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수입을 바탕으로 소비지출과 저축 및 투자 등 금융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경제생활에서 신용의 활용 사례를 통해 신용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다양한 금융수단의 특징을 자산관리 원칙에 따라 비교해 보고, 미래의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금융생활에서 나타나는 수입·지출·신용·투자·시간 등의 의미를 이해한다.

② 현재와 미래의 수입·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한다.

③ 자산과 부채를 비교하고, 신용의 중요성과 합리적인 관리 방법을 파악한다.

④ 자산관리 원칙을 기준으로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등 다양한 금융수단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다.

⑤ 금융생활의 장·단기 목표를 정하고 합리적인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OECD 및 EU국가들의 경제·금융교육의 강화 추세 및 경제의 필수과목 지정 추세를 감안하면 하루빨리 경제 과목을 다른 사회 과목과는 달리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교육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기본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2) 미래형 교육과정에서의 경제교육의 강화

우선 경제 과목의 필수화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창의적 체험 교육을 강화하고 진로 교육에 경제교육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고등학교 경제교육과 대입 제도의 연계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제관련 AP, UP 등 심화 교육과정의 개발도 필수적이다.

또한 경제교육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나 교사 공급 체계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경제 과목의 수강을 늘리는 동시에 경제교육학과를 신설하며, 경제학 전공자의 교사 진로 확대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3) 경제교육지원 체계의 실효성 제고

2009년 2월 「경제교육지원법」에 의해 한국경제교육협회가 탄생하였다. 앞으로 한국경제교육협회는 미국의 CEE를 벤치마킹하여 각국 연구소, 정부, 대학, 민간기관 등과 협의하여 한국의 경제교육을 위한 메카로써 거듭 태어나야 한다. 아울러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및 기타 경제교육의 유관 단체와는 지속적 연계를 통해 경제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경제교육 센터는 지역의 민간 경제 단체, 기업, 대학, 경제교육기관들은 물론 지방자치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교육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교육의 허브로써 발전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연구기관, 언론사 등을 통한 경제교육 홍보 활동 강화도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 참고문헌

김용태 (1998),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과제,” 『시민교육연구』, 27, 51-73.

박명호 (2005), “청소년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학회 경제학교육위원회 2005년도 제1차 심포지엄, 주제발표 2.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2009), Survey of the States.